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Let’s encourage one another. Let’s persevere.”  
(히브리서 Hebrews 10:19-25, 32-36)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1세기 중반 초대교회는 글라우디오 Claudius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등져라’는 유혹 앞에 놓인 초대교우들을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현대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더 이상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일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I hope you have had a peaceful week in the grace of God. Today we are standing before the words of encouragement recorded in the Book of Hebrews. In the middle of the 1<sup>st</sup> century, the early church under Emperor Claudius was greatly persecuted. The author of Hebrews encourages with words early Christians who were facing the temptation of denying Jesus Christ. With freedom of religion, modern churches are no longer under the threat of martyrdom. Nonetheless, such attempts to delete Jesus the Lord from our daily lives are fiercer than ever.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 없는 바쁨에 내몰림 당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신문 지면을 통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슈퍼 맘, 현직 판사가 사망했습니다. 늦은 주말 밤 판결문을 쓴 뒤에 자택 화장실에서 과로사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이 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바쁨에 이끌려 사는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예전엔 밤새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인들은 더 바쁘게, 더 바둥대며 살아도 더 의미 있는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과중한 업무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채, 숨가쁜 하루하루 속에서 허둥대고 있지요. 어찌 보면 로마황제 보다 더 심한 박해는 분주함 일지도 모릅니다. 박해의 목적이 예수를 지워 버리는 것이라면, 바쁨 만큼 심한 박해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We, living in modern times, are driven by overwhelming busy-ness. A few days ago, I read a heart-wrenching article in the newspaper. A judge, a mother of two young children, had died. She was a super mom who tried to take control of both her career as well as family. Late on a weekend night, having finished writing legal judgements, she was found in her bathroom dead from overwork. What she posted on the Internet about a month ago was the portrait of modern people, being ruled by busyness. “Staying up all night used to be okay, but now I am exhausted at 3 AM. If I collapse, going on like this, I wonder if anyone’s going to find me.” Despite our excessive busy-ness and hurried lives, those of us in modern times are not leading more meaningful lives. Having become slaves of work, we are struggling in the ever-tightening pressure of daily workloads. In a way, busy-ness is a more severe persecution than that of a Roman emperor. If the goal of the persecution was erasing Jesus Christ from our mind, there would be no other persecution that does the job so well as business. Now, let’s delve into today’s scripture.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19-20a)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Hebrews 10:19-20a)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정결예식을 마친 후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레위기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사용하던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레위기 10:1-3)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예배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두툼한 지성소 휘장을 찢고,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주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담대하게’의 원어적 의미는 말과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수치심, 열등감도 유월절 어린양 가죽옷으로 감싸 주시는 은총입니다.

To understand these verses correctly we need to go back to the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We can't come unprepared before the Holy God. Only the priest can enter the holy place upon completing a purifying ceremony. In Leviticus it was recorded that Nadab and Abihu, sons of Aaron, were killed instantly when they came before God with censers lit by their own incense (Leviticus 10:1-3). The event of the cross of Jesus signifies a new worship. The blood of the cross tears the thick curtains of the most holy place and invites all of us to a place of worship. We confidently come before God by the power of Jesus's blood. Here, the meaning of **confidence** is important. Originally, it means the freedom of speech and action. It means that we are **entitled, given rights** to come before God without any reservations or obstructions. Our lives destined to die due to our sins, instead come before the throne of grace by the merits of the precious blood of Jesus. This is the grace that covers even our shame and inferiority complex with the skin of the Passover lamb.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3 가지 핵심가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22 절), 소망(23 절), 사랑(24 절) 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3 번 거듭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권면은 막연한 권면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In today's verses, there are three essential values which held tight the early church. They are faith (v.22), hope (v.23), and love (v.24). The author of Hebrews offers three repeated encouragements of faith, hope, and love. His words to “encourage one another” is not ambiguous, but is an assurance for faith, hope, and love.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v.22a)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and with the full assurance that faith brings (v.22a)

**확고한 믿음**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 구원 받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오직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잘남, 효율성, 출중함이 아니라 오직 말로 다 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로 쓰이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사를 보혈과 연결해서 구원론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보혈이란 말입니다.

**A sincere faith** is the assurance that we have been saved by the merits of Jesus' precious blood. That's true. There is only one basis in our faith, which is the cross. That we can boldly draw near Abba Father is only because of the grace of the cross. It is not our greatness, efficiency, or extraordinariness, but God's indescribable, amazing grace. The verb "**draw near God**" has a special meaning of standing before God at a sacrifice. The author of Hebrews is reinterpreting this verb in terms of salv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ecious blood. To simply put, the only way we can draw near God is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추한 부분을 정결하게 씻겨 주십니다. 오직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결코 내 능력, 내 경험에 힘이 실리면 안됩니다. 확고한 믿음은 오직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 없네' 라는 벽찬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3 절 말씀은 '소망의 권면'입니다.

Jesus' precious blood is washing clean all our ugliness and dirtiness. Only His precious blood is our righteousness. In a church whi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only our Lord must be manifest. It is never our abilities or experiences that should be our emphasis. A sincere faith draws near the throne of the grace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This is our heartfelt confession that we cannot stand without the grace. Next, the message of Verse 23 is an "encouragement of hope."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v.23)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v.23)

소망의 근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속삭임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The reason for our hope is the God Who called us, the God Who is unchanging yesterday or today. The hope of a Christian can't be rooted in worldly temptations or sweet whispers. What is seen or what is changing can't ever be our hope. Let's praise the faithfulness of the God Who created us and Who knows us more than we know ourselves.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He sees each tear that falls/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세상 보지 말고,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오. 믿음에 관한 권면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입니다. 소망에 관한 권면은 **‘신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언제인가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소망입니다. **‘실패는 꿈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깊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Let us not look at the world and let's not get tied down by current situations and conditions, but let's only look at God. Let us get hold of our faithful God, and maintain our hope steadfastly. The admonishing words for faith are **‘To go toward God with a firm belief.’** The admonishing words for hope are **‘To firmly get hold of faithful hope.’** To be more specific, this is the hope that we once had confessed with our hearts and with our lips. Some time ago, I had deeply sympathized with a phrase **‘Failure is another name of dream.’**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9)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Galatians 6:9)

낙심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사랑의 권면’** 입니다.

If we do not become weary, if we do not give up, the time will surely come to reap a harvest. **‘Even if we sow the seeds of sorrow, we will surely reap harvest with happiness.’** This is faith. This is really hope. The last, third is **‘admonishment of love.’**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10:24)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Hebrews 10:24)

사랑에 관한 권면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으로 격려하라’** 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9-12) 하나가 넘어지면 곁에 있던 동무가 일으켜 세워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립 서비스에는 사랑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팍한 자비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써서’** 정성껏 내 마음을 쓰는 희생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The admonishing words for love are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The writer of Ecclesiastes says **‘Two are better than one.’** (Ecclesiastes 4:9) If one stumbles, a friend next to him can raise him up. One person alone may lose, but two together can stand against an enemy. Cords made of three strands are not easily torn. We need a love of action and truthfulness, not a love of words and tongues. There is no power of love in lip services. Shallow kindness rather makes the other person feel disgusted. How can one distinguish a true love from a false love? The true love comes only from sacrifices based on **‘considering others’** with our sincere hearts.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어떻게 이런 ‘거룩한 낭비’가 가능했습니까? 여인은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마음을 써서, 온 마음을 예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미 온 마음을 다 드렸기에, 향유는 그저 마음을 다 드리는 표식에 불과합니다. 향유를 열기 전에 이미 마음을 열었고, 향유를 붓기 전에 벌써 마음을 다 부었습니다. 내 것 꼭 붙잡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 안 내주고 사랑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어쩌면 물질, 시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마음을 써서’ 사랑합시다. 힘들고 지친 분이 곁에 있다면, 마음을 써서 사랑의 격려를 드립시다. 혼자 애쓰고 있는 분을 본다면, 묵묵히 마음을 쏟아서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A woman who poured very expensive perfume on Jesus; how could such ‘holy waste’ have been possible? Before pouring the perfume, she already had considered and then poured all her heart onto Jesus. As she already had given all her heart, the perfume was just a symbol of her heart offering. Before she opened the perfume, she already had opened her heart, and before she poured the perfume, she already had poured her heart. We cannot love while tightly holding onto my own things. Let’s not say that we loved when we hadn’t given up anything we had. A more important thing than materials and time might be heart. Let’s love our family and brothers/sisters in the church ‘with caring and consideration.’ If there is a person who is struggling and tired, let’s give our love and encouragement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If we see a person who is struggling all alone, let’s share our love ‘with due consideration’.

누군가를 평가하고, 끌어내리는 것, 그저 팔짱만 끼고, 잘했나 못했나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분, 쓰러진 분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분을 위해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 밖에 안돼? 정말 고것 밖에 못해?’ 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수고 했어요.’ 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덩치가 산만한 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마움과 축복의 마음이 함께 담겨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때 진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 권면을 준 까닭이 있습니다. ‘3 중 권면’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25 절 말씀 때문입니다.

Evaluating, taking down and simply criticizing somebody with folded arms whether somebody did right or wrong things is an easy thing to do. However, it is not easy to help an isolated struggling person to stand up again and love him/her with our heart. It’s because it means that we have to approach a soul and pour out all of our hearts for that person. We shouldn’t say, “Why is this all you can do? Really, is that all?” We should be able to say,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You really worked hard.” Not ‘From now on, do this and do that,’ but ‘How can I help you?’ The words, ‘I love you, I thank you, and I bless you.’ can make even a humongous whale to dance. Love must contain thankfulness and blessings. Acknowledgment, respect and trust between each other can start a real love. There is a reason why the writer of Hebrews gave us three admonishments; faith, hope and love.

It is because of the words of Verse 25 immediately following the three admonishments.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v.25)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ing one another—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v. 25)

이 말씀은 단지 예배나 헌신을 멀리하는 현대교인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순교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버리는 배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권면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벗어나 끼리끼리 개인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든 사람. 26 절부터 31 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점잖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This teaching is not for the modern Christians who simply stay away from worship or devotion. In the times of the first church also, there had been people who betrayed Jesus Christ in front of the threat of martyrdom. There were people who left the church, not being able to hold onto the admonishments of faith, hope and love,. Some also formed new personal groups outside the church. Reading Verses 26-31, we understand that these admonishments were not gentle encouragements, but severe warnings. If one tramples God, insults the Holy Spirit and divide the community, severe punishments will surely follow.

웨슬리 홀 재건축이 지난 주일에 있었던 기공예식과 함께 시작 됐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와싱턴한인교회는 지난 세 번의 건축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건물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으로, 또 선교로 영적 성전도 동시에 탄실하게 건축 했습니다. 이번 재건축 기간 동안 전 교우가 성경을 필사하고, 또 기도로 영적건축을 감당합니다. 건축 기간 동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특별히 하나 됨, 마음을 모으는 일을 방해하려고 애쓸 겁니다.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한 주에 한 끼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각 자 일주일에 한 끼를 정하시고, 교회와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Reconstruction of the Wesley hall started last weekend with a Ground Breaking Ceremony. What Satan hates most is building a church that is the body of God.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Greater Washington, during its past three periods of construction, built not only the visible structure but also built solid spiritual temple through prayers, meditations and mission works. During this Wesley Hall Reconstruction period, all church members will scribe the bible and support building of our spiritual temple.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lets' stay awake in the Holy Spirit and pray. Satan, like a roaring lion, would try to interfere, especially with our becoming one body through gathering of our hearts. If your health permits, please join me in fasting one meal a week and praying. Each person can decide on what meal of the week to fast and pray for the building of the church and our spiritual temple. Please continue listening to the admonishments of the Hebrews writer.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v.32b)

**Remember those earlier days** after you had received the light, when you stood ground in a great contest in the face of suffering. (v.32b)

우리 공동체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마음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지요. 누군가 예수 때문에 모욕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온 교회는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For our faith community to exist today, there have been the numerous prayers and devotions of many predecessors of faith. Some of them are with us now and others are already in the arms of the Lord. They poured out the perfume of their hearts for the Lord even when their situations were much more difficult

than now. Of course, there were many great believers in the early church. If someone was to bear insults and tribulations with joy because of Jesus, the whole church became a strong supporter for him or her.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v.34)

You **sympathized with** those who wer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v.34)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산몰수는 다른 형벌을 받은 후에 더해지는 가중처벌입니다. 감옥에 갇힌 교회식구를 위해 기쁨으로 벌을 받고, 재산까지 압수 당한 것입니다. 믿음/소망/사랑의 위로와 권면은 초대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목으로는 좀 길지만 히브리서 권면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According to Roman law at the time, confiscation of property was a penalty added after a punishment. They received their punishment joyfully for the sake of church family members in prison and their properties were confiscated. The comfort and exhortation of faith/ hope/ love united the Early Church into one. Even before the threat of death, they boldly became one with the dream of an eternal heavenly kingdom. I entitled today's sermon,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e need perseverance." It is a little long, but it is the same as the exhortation in Hebrews. It is a necessary word for our present community.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힘 드세요?’

제가 앞서서 날아 갈게요. 제 날개 뒤에서 조금이라도 바람을 좀 피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꼭 드려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분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 분도 큰 힘을 얻습니다. 격려 뒤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바닷가 돌 위에 새겨진 멋진 그림도 한나절에 파도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e need perseveranc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gether so far. Are you tired now? I will fly before you. Try to avoid headwind behind my wings.’ Fellow church members, please be sure to give someone a word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during this week. Amazing things will happen. Not only does the person who is comforted and encouraged gain strength, but the one who comforts the person also gains great strength. What you always need after encouragement is perseverance. You cannot build the Great Wall overnight. A wonderful picture carved on the stone of the beach is not drawn by a wave in a half day.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v.36)

**You need to persever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will receive what he has promised.  
(v 36)

왜 고난의 시간이 그토록 견디기 힘들니까? 물론 고난의 강도와 빈도도 힘들지만, 고난 그 뒤 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Why is the time of suffering so unbearable? Of course,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suffering are hard, but we are also troubled because we do not know what is behind the suffering. The Bible clearly says.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개역개정)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Romans 5:3-4)

고난은 인내와 연단의 창문을 통해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 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곧 이어 12 장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Suffering leads to hope through the pathway of perseverance and self-discipline. The Scripture says not to hold onto worldly things, but to lift your eyes toward heaven. Hebrews chapter 11, known as the chapter of faith, introduces people of great faith. Right after, chapter 12 introduces the one with the greatest faith, our Lord Jesus.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a)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s 12:2a)

한자로 참을 인자 안에는 칼과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는다는 것, 인내는 칼로 마음을 베어내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 **忍 참을 인**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베어내며 인내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인내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The Chinese character, 忍 (perseverance), consists of two characters, meaning a sword and a heart. What does this mean? Perseverance accompanies pain comparable to cutting our heart with a knife. Let us pour out our hearts and love for one another. Let us persevere as if enduring cutting out our hearts.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e need to persevere. Bless you to have a blessed week encouraging one another and persevering in the Lord.